



북한군, 북한사회, 대남공작(上)

- 군내 성군기 문란·약탈.. 마적단 변한지 오래



김정일의 급사로 김정은과 그의 후견세력이 권좌에 앉은 지금 국내외 전문가들은 북한의 미래에 대해 상이한 전망을 내놓고 있다. 하지만 전체주의적이고 폐쇄적인 북한사회를 외부에서 전망하는 데에는 어쩔 수 없는 한계가 존재한다. 이에 이번 호에서는 지난 해 입국한 북한군 출신 탈북민의 입을 빌려 북한군과 북한사회, 그리고 대남공작의 실상을 생생히 전하고자 한다. 인터뷰에 응해주신 송명숙(가명)씨는 북한군 소좌(소령) 출신으로 20년 가까이 북한군에 복무했으며 대남공작의 실상을 가까이서 지켜보기도 했다. 지면관계상 인터뷰 내용은 두 차례에 걸쳐 게재한다. <편집부>

최근 북·중 국경 분위기는 어떤가

최근에는 경계가 삼엄해졌지만 2000년대 중후반까지만 해도 돈만 주면 쉽게 국경을 건널 수 있었다. 그땐 북한돈 5만원이나 미화 200달러면 경비병들이 직접 두만강을 건널 수 있게 도와주기도 했다. 하지만 대부분의 북한주민들은 그럴 돈이 없는 경우가 많아 밤에 몰래 강을 건너다 떠나려가 죽기도 하는 것이다. 경계가 삼엄해졌다가 느슨해지는 것도 다 시기가 있는데 한국 언론에서 탈북귀순했다는 이야기가 자주 나온다 싶으면 김정일의 명령으로 국경연선에 100일, 200일 등 경계강화지침이 내려온다. 이럴 땐 돈을 쥐도 강을 건너지 못하고 걸리면 즉각 관

리소(정치범 강제수용소)행이다.

그러나 요즘은 김정은이 국경에서 총소리를 내라며, 마구 죽이라고 하는 통에 월경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다. 지난해에는 탈북을 막기 위해 국경연선지역인 함경북도 온성부터 회령시까지 가시철조망을 치고 두만강에서 폭이 넓고 깊지 않아 건너기 쉬운 지점을 골라 강변에 지뢰도 매설하고 있다. 실제로 작년부턴 입국한 탈북민 중에 다리를 찢뜩거리는 사람들이 적지 않았는데, 이들에게 물어보니 두만강을 건너다 지뢰를 밟았다는 것이다. 다리가 부러지고 피가 줄줄 흘러도 어쨌든 중국으로 건너가야 살 수 있다는 일념으로 국경을 넘고 있는 것이다.

현재 북한군 내 식량배급 수준은?

90년대 중반까지 우리 부대원들은 하루에 식량배급 800g으로 연명했는데 그나마도 고난의 행군이 시작되던 시기인 1995년도부터 580g으로 줄어들었다. 세끼 중의 한끼를 죽으로 먹이라는 지시까지 떨어졌다. 그러다보니 군의소(의무대)에는 걷지도 못하는 영양실조 환자들로 넘쳐나기 시작했다. 병영 내에서는 이들 중 가망이 없는 이들을 고향으로 돌려보내고 있다. 북한군에서는 병영 안에서 군복을 입고 죽게 되면 어떤 연유든 전사자로 처리된다. 이렇게 되면 인민무력부에서 전사증을 받고 훈포상에 대한 제의서를 올리는 등의 서류절차를 거쳐야 하며 유가족들에게도 금전적 혜택을 제공해야 하는데, 죽기 전에 집으로 돌려보내면 이 문제가 모두 해결되기 때문이다. 물론 고향으로 돌아간 병사들은 요양은 커녕 민간인들이 더욱 심각하게 굶주리는 열악한 상황에서 대부분 한 달도 못돼 죽어간다.

물론 고난의 행군 이전에도 혈기왕성한 청년병사들에게는 하루 800g의 식량배급도 모자랐다. 병영 내에서도 배고픔을 직접 언급하거나 배급 관련 불만을 제기하는 것은 금기사항이었지만 가까운 병사들에게 병영생활의 애로사항을 물어보면 늘 가장 먼저 하소연하는 것은 ‘배고픔’이었다.

대북구호품이 병사들에게 전달이 안 되는 건지..

구호품도 군종·병종에 따라 달리 배급된다. 경찰국, 호위국, 민경부대, 저격여단 등 김정일이 진짜 자신을 위해 싸워주리라 믿는 부대에 우선적으로 배급되는 것이다. 사실 적십자에서 구호품이 들어온다는 이야기는 1992년부터 들었는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소화제 같은 약품 몇 가지 외에 식량은 쌀알 한 톨도 구경한 적이 없다. 이런 실정이니 북한 내 요직에 있는 사람들끼리 모이면 앞으로 김정은 체제는 길게 잡아 5년도 못갈 것으로 이야기하곤 한다. 후견인으로서 권력을 쥐고 있는 장성택이 김정은에게 순순히 권력을 넘겨줄리도 없지 않은가.

한창 고난의 행군을 겪던 90년대 중반, 평양에서 각종 요직에 있던 군관들과 술자리를 가졌을 때 누군가 “이 나라는 오래 못가. 김정일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알아? 김정일 주변은 온통 강아지뿐이야”라고 말하기에 무슨소린가 하고 물었더니 김정일이 강아지를 좋아해서 집무 중에도 강아지에게만 둘러싸여 있다는 거다. 김정일이 집무 중 피곤할 때를 위해 기쁨조 내에 안마조가 따로 있고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출 인력도 준비되어 있다고 한다. 이러한 사실들과 함께 ‘이 체제는 썩었고 얼마 못가리라’는 말들이 그 당시부터도 북한 내 요직사회에서 돌고 있었던 것이다. 그 때도 그런 분위기였는데 김정은 시대는 앞으로 어떻게 전개 되겠는가. 불 보듯 뻔한 일이다.

북한군의 군복 지급상황은 원활한가

북한군에서는 규정상 자신이 입던 군복을 2년에 한 번씩 새 군복으로 교체하게 되어있다. 이는 80년대 중반까지는 그럭저럭 유지되었으나 80년대 말부터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90년대 들어서부터는 여군들이 군복이나 걸레를 찢어서 생리대로 쓸 정도였다. 금강산 관광지에서 근무를 서고 있는 병력들이 초췌해 보이지만 그나마도 한국관광객들과 직접 접하는 만큼 남들보다 비교적 키도 크고 건강해 보이는 인원

을 뽑아 좋은 복장을 지급해준 것이다. 후방은 말할 나위도 없다. 훈련 차 강원도 통천에 주둔한 부대를 방문한 적이 있었는데 병사들의 바지가 다 떨어져서 속옷을 흰히 드러내놓거나 군데군데 기워 입고 있어 가슴이 아팠던 적이 있었다. 그래서 제대 말기가 되면 집에서 받은 돈으로 장마 당에 나가 군복을 직접 사 입고 다닌다.

부화사건(성군기 위반사건)이 심각하다는데..

심각한 상황이다. 현역시절 직접 겪은 일도 있었는데, 한번은 한 어린 여성 대대원이 김정일 우상화 도록 해설을 위해 각 구분대로 파견되어 임무를 마치고 돌아왔는데 갈수록 배가 불러왔던 것이다. 결국 임신 사실이 드러나고 보위부 심문 중 자살하고 말았다. 부화사건 시 남녀 모두 강제 제대시키게 되어있지만 여단장 등 가정이 있는 고위급 남성 군간부의 경우 적발되어도 처벌받지 않고 거짓 문건을 꾸며 처리하고 있다. 반면에 여성은 모든 걸 뒤집어쓰고 처벌받게 되어 있으며 제대 후에도 그 낙인이 평생 따라다닌다.

요즘 군기강은 어떤지

젊은 사람들이 군에서 지내야 하는 기간이 워낙 길다보니 군기강이 해이해지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것 같다. 검열차 고지에 위치한 부대를 방문하면 망을 보던 병사가 차가 올라오는 것을 보고 신속하게 근무태세를 갖추고 간부를 맞을 준비를 한다. 그래서 한번은 차를 두고 조용히 걸어 올라갔더니 무기는 나무에 걸어놓고 옷통 제끼고 곡식 일구고 말도 아니더라. 탈영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대부분 배고픔이 주 이유다. 90년대 들어서서는 한 개 중대에 7명씩 단체로 탈영하는 일도 있었다.

탈영사건이 워낙 일상적으로 일어나다보니 상부에 탈영보고를 하면 병사 몇 명 선발해서 집집마다 몇 군데 찾아보는 게 고작이다. 경무관들(헌병)도 시가지에서 군인들이 보이면 군인증을 검사하며 탈영병을 잡는



▲ 신의주 인근의 국경경비대원들

다. 외출허가를 받지 않은 모든 군인은 부대 내에 군인증을 보관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군인증 없이 돌아다니는 군인은 탈영병이란 소리다. 경무관이 탈영병을 잡아 해당 부대에 보고를 해도 구류장(유치장)에서 밥이나 잘 먹여 달라며 데려갈 생각을 않는다. 어차피 탈영병이 계속 생길거, 몇 개월쯤 더 내버려두었다가 체포된 자기 중대 탈영병이 십여명 정도 차면 그제서야 차량으로 구류장을 돌며 데리고 온다.

또 노동당 입당이 삶의 질을 결정하는 체제 특성상 제대말기에 입당하지 못한 것을 비관해 자살하는 경우도 많았다. 군복무 초기였던 80년대 때도 그런 일을 비일비재하게 겪었는데 한번은 제대를 앞두고 마지막 초소근무를 나간 병사가 입당허가를 받지 못하자 소총으로 자살을 기도한 일이 있었다. 총박죽(개머리판)을 땅에 대고 총구를 심장에 겨눴는데 손가락이 방아쇠에 닿지 않으니 나뭇가지를 이용해 방아쇠를 당겼지만 총알이 심장을 빗나가 부상만 입고 말았다.

한 여군병사가 병실(생활관)에 불을 지르고 그 안에서 타죽은 일도 있었다. 사건직후 그 병사의 유서가 발견됐는데, 입당하지 못한 것을 비관하면서 여군들이 몸을 바치고 입당하는 부대 내 실태를 고발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심지어 직일병(당직사병)으로 야간근무 중 자신보다 군생활을 훨씬 못했던 다른 여군이 정치지도원 앞에서 벌거벗고 있는 모습을 창문 너머로 엿본 등의 고발도 날짜와 시간별로 자세하게 적어놓았던 것이다. 이 유서가 사단보위부까지 올라가 해당 정치지도원은 강직제대되고 인민무력부 보위부로 호송됐다.

최근 북한군 병사들이 민가를 약탈한다는데..

최근이 아니라 군복무 초기였던 80년대부터도 그랬다. 장병들의 가족이 면회 오면서 두부, 명태 등 부대원들을 위한 식량과 소대장, 중대장을 위한 뇌물을 바치는 것은 북한에선 당연한 관례다. 이에 중대 차원에서 대접할 것이 마땅찮으니 면회일정이 잡히면 중대장이 중대원 중에서 재빠른 인력을 뽑아 면회자를 대접할 식재료를 인근 민가에서 간밤에 몰래 훔쳐오도록 했다. 아마 북한에서 군생활한 사람치고 남자든 여자든 도둑질 한번 못해봤다는 사람은 없을 거다. 나도 도둑질 몇 번 나가봤다. 하전사(부사관) 시절 동료들과 간밤에 명태 말리는 대롱째 걸머지고 도망가기도 했고 말로는 ‘인민의 재산을 생명처럼 여기라’고 하지만 그야 말로 말뿐이지, 그때도 북한군의 식량사정은 좋지 않았기 때문에 북한군 병사들의 민가약탈은 관습처럼 굳어져왔다.

그러다보니 군부대 인근 마을주민들은 군인들이 도둑질할까봐 밤이고 낮이고 문을 꼭꼭 걸어 잠근다. 그래도 배고픈 병사들은 병영 밖으로만 나올 일이 있으면 신을 신은채로 민가에 쳐들어가 식당(찬장) 문을 열고 먹을 게 있으면 그 자리에서 먹곤 했다. 집주인이 막 때리고 물을 끼얹어도 께넘치 않고 먹는다. 이에 주민들이 항의하러 부대에 올라와 군인들 때문에 아이들이 굶는다고 하소연해도 좋은 말로 “처벌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현실도 이렇게 어렵습니다”며 달래줄 뿐 아무런 대책도 내놓지 못하고 있다. 90년대 고난의 행군 이후부터는 그런 일이 하루에도 수십 건이라 전화를 받는 게 무서울 정도였다.

그나마 내가 복무했던 부대는 자체적인 보급소라도 있어 좀 형편이 나았지만 그러지 못했던 인근 모 부대는 그야말로 ‘마적단’이라 불리며 나타나기만 해도 주민들이 다 도망을 갈 정도였다. 단체로 민가에 내려가 옥수수고 감자고 어린 싹까지 풀 한포기 남기지 않고 다 파먹는다는 거다. 하루 세끼 중 두끼를 죽으로 때우고 나머지 한끼는 통강냉이 같은 것으로 연명하다보니 그런 꼴이 된 것 같다. 젊은 군인들이 매일 같이 주러가면서 강도 높은 훈련을 받으니 빼빼 말라만 가고.. 그렇다고 죽을 수는 없으니 말이다.

민가에서 강냉이를 약탈하려던 한 병사는 이를 막던 할아버지와 실갱이를 벌이다 잘못 때려서 할아버지를 죽인 일도 있었다. 결국 강냉이 40kg 때문에 할아버지도 죽고 그 병사도 본보기로 총살돼 죽고 말았는데, 그 병사는 총살 직전에 저승에 가서 효도하겠다며 용서를 빌었다고 한다.

사회에서 ‘군대가 도둑질하고 군대가 인민을 때리니 군대만 없으면 살 것 같다’는 말들을 많이 들었다. 약탈 때문에 부대 근처에서 다른 곳으로 이사가고 싶다는 사람들도 많고 주민들은 나라를 지킨다는 군인들의 약탈을 막기 위해 오히려 힘 좀 쓴다는 청년들을 모아서 밤에 순찰까지 도는 상황이다. <다음 호에 계속> **北韓**